

학술적 에세이
달인되기 Step



학술적 에세이,
이런 논리를 갖춰야 한다.

이창후_학부대학 의사소통교육센터



Contents

01	이 책의 내용	3
02	서론과 결론에 대하여	5
03	학술적 글쓰기 본론의 논리적 열개	13
04	학술적 글의 본론 구성 방법을 더 상세히 이해하기	26
05	학술적 에세이 내용의 논리적 구성에 대한 종합 정리	32



Step 01

이 책의 내용

1. 학술적 에세이에서 내용은 어떤 논리를 가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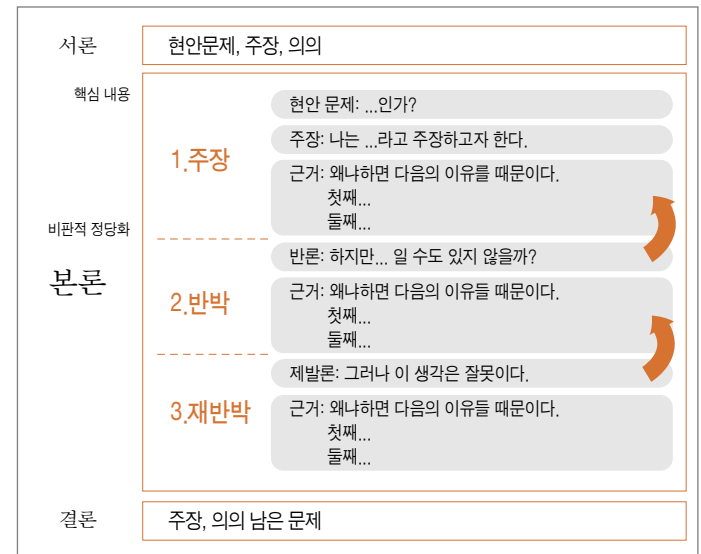
학술적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우 많다. 다음과 같은 것들, 그 이상이 필요하다.

- 가. 맞춤법,
- 나. 보다 훌륭한 표현, 글을 다듬는 법,
- 다. 요약하는 법,
- 라. 논리적/비판적 사고,
- 마. 참고자료 인용법 ... 등.

이 책에서는 그 중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학술적 에세이의 내용이 어떤 논리적인 열개를 가져야 하는가?

그 답은 다음의 그림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다.



2. 참고 사항

가. 이 작은 책자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그림의 내용이 전부이다. 더 많은 것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나. 그림 한 장에 압축되는 이 내용은 논리적 주장에 있어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핵심 지식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논리적 주장의 기본 틀은 박사과정의 논문에서나,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활용하는 기본 틀이다. 그만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Step 02

서론과 결론에 대하여

1. 무엇을 어떻게? 이대로 써라.

서론과 결론의 내용과 구성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틀을 따른다.

<서론의 표준 형식>

- 1) 현안문제: "...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2) 주장: "이와 관련하여 나는 ...라고 주장할 것이다."
- 3) 의의: "이런 논의는 ...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결론의 표준 형식>

- 1) 주장: "나는 지금까지 ...라고 주장하였다."
- 2) 논의의 한계: "이런 논의는 ...라는 이유로 ...와 같은 한계점이 있기는 하다."
- 3) 의의 혹은 발전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는 ...와 같은 이유에서 의미가 있다." 혹은 "차후에는 ...와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생 여러분이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초보자라면

가. 위와 같은 서론과 본론의 틀에서 더 이상의 내용을 덧붙이지 말라.

나. 단 세 문장(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의 4-5문장)으로 서론과 본론을 써라.)

다. 그래도 어렵다면? 빈칸 채우기를 하라.

위의 서론과 결론의 틀에서 "..."로 된 부분을 빈칸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적당한 내용을 채워서 자기 글의 서론과 결론으로 다듬으면 된다.

3. 서론 쓰기의 예

아프리카 기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추천할 만한 서론의 예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및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기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에서 실질적인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는 각 개인들의 실천적 고민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위 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사항들

가. 정확히 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초보자가 이 서론을 썼다면, 잘 쓴 글이다.

물론 더 잘 쓸 수도 있다. 초보자가 아닌 경우에 그러하다.

다. 앞에서 제시된 서론의 표준 형식과 정확히 동일하다.

거의 '빈 칸 채우기' 를 하듯이 글을 썼다.

→ 표준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좋은 서론을 쓸 수 있다.

4. 결론 쓰기의 예

결론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의 예가 괜찮은(좋은) 결론의 한 예이다.

여기

나는 지금까지 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해결책으로서 기부장려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국가 정책을 요구하는 이런 논의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만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짧은 논의로는 정당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의 주장이 다소 부족한 근거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글의 주장은 최소한의 의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눈 여겨 봐야 할 사항들은 서론의 예와 동일하다.

5. 서론과 결론 쓰기의 주의 사항

가. 서론과 결론을 쓸 때에는 불필요한 요소들은 빼라.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서론과 결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글쓰기에서 중요하다.

대개 글을 못 쓰는 사람의 특징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넣는다는 것이다.

나. 서론과 결론을 쓸 때에는 대개의 경우 기본틀의 세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것을 뺐다면, 이제 필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다. 각 요소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내용의 순서는 문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6. 왜 표준 형식과 같이 써야 하는가?

가. 서론과 결론은 기능적인 글조각이기 때문이다.

- 서론은 본론에서 어떤 내용이 제시되는지를 안내하는 부분이다. 본론이 길면 길수록 서론이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은 한 눈에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꼬리표와 같다.

- 많은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 나와야 하는 '긴 내용의 글' 이 서론에서 먼저 나온다.

나. 본론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왜 그런 말을 하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서론이기 때문이다.

예) 읽는 이는 서론을 읽고 본론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복지정 책에 관심있는 사람이 이공계 발전방향에 대한 글을 읽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 결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론에서 길게 한 말을 요약하고, 그것에 대해 간단히 평하는 것”

라. 짧은 글에서는 서론과 결론이 필요 없다.

반 쪽짜리의 짧은 글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나치게 짧은 글에는 서론과 결론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는 본론에서 쓴 긴 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말해 주면 좋다.

〈잘 이해 안 돼요〉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왜 이런 기능적인 서론과 결론을 넣어야 하는가? 그것은 글 쓰는 학생 자신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적이 없다고? 그런 학생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을 원한다. 당신이 글을 쓸 때 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글을 읽을 때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글을 썼는데, 남이 읽어 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글은 잘 썼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긴 글을 읽으려고 책이나 문서를 손에 잡았다고 해 보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써여 있는지 모른다. 읽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 여기에 쓰여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고 시작한다. 그 ‘어떤 내용?’에 대한 답을 짧게 제시하려면 어떤 것을 말해야 할까? 결국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으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일 것이다. 거꾸로 해야 한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주장)을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본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쉽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조차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론에 ‘주장’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 주장이 무엇에 대한 주장인지도 설명해야 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그것들을 말했다면 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여기에서 더 말해야 하는 내용은 본론에서 말해야 한다.

결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긴 이야기를 상대로부터 듣거

나 읽었다. 그 내용이 길었다면 끝에서 한번쯤 간단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한다.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의 한계를 적절히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도움이 된다. 왜 그런가? 자기 생각의 한계를 말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요만큼만 확실하고 옳고, 그 이상은 틀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읽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한 걸음 물러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주장을 보다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무조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기 쉽다. 끝으로 의의나 발전방향은 다소 가식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런 요소들을 ‘역지로’라도 덧붙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기 주장은 무한정하게 타당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논의의 한계) 혹은 자기 주장은 문제해결의 끝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에 다음 단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발전 방향) 초보자에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뭐라고 써야 할지도 막막할 것이다. 그렇게 어렵다고해서 안 쓰는 것이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렵더라도 필요한 내용이라면 써야 한다. 글쓰기의 기본 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적절히 강요하는 기능을 한다.

7. 학생들의 흔한 질문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불만을 가질 것이다.

가. 서론을 인상적인 내용으로 쓰면 더 좋다고 배웠다. 하지만 위의 빈 칸 채우기는 그렇지 않다.

서론을 인상적인 내용으로 쓰는 것은 ‘기교’의 문제이다. 기교를 자유자재로 부리려면 ‘기초’가 먼저 튼튼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기초’의 내용이다.

기초를 먼저 익히고, 그 토대 위에서 기교를 부려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

나. 정말 저런 '형식적인' 방식으로 쓰면서 잘 썼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써도 충분히 좋은 학술적 에세이를 쓸 수 있다. 그것은 시(詩)가 문법을 뛰어넘을 경우도 많지만, 문법의 틀 속에서도 좋은 시(詩)를 쓸 수 있는 것과 같다.

다. 이와 같이 '제품조립' 과 같은 것이 더 나은 글쓰기의 방법일 수 있겠는가?

표준 형식에 따르는 것은 외국어를 배울 때 '기본 문형' 을 먼저 익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글' 을 쓰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 표준 형식을 자유 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

8. 기초와 기교

글을 더 잘 쓰기 위한 '기교' 들이 있다. 인상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서론을 보다 멋있게 쓰는 것이 한 예이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예12

〈서론〉 - 좋아야!

폴리처 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자살했다. 그가 찍은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굶어죽어가는 아이의 옆에서 독수리가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카터는 비난으로 자살했는데, 카터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기아의 참혹함이었고, 카터가 자살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글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위 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사항들

가. 케빈 카터의 예를 제시하여 서론을 인상적이고 더 강렬하게 썼다는 점이다.

나. 〈서론 예2〉가 〈서론 예1〉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

케빈 카터의 예는 현안문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사용되었고, 글이 조금 늘어났기는 하다. 하지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교를 부리면서 기초를 무너뜨리면 더 나쁜 글이 된다. 위에서 제시된 서론의 기본 요소들 이외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빠진 글은 좋은 서론일 수 없다. 다음이 그러한 예이다.

예13

〈서론〉 -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폴리처 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자살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굶어죽어가는 아이의 옆에서 독수리가 기다리는 사진을 찍음으로써 일약 유명한 스타로 발돋움했고, 그 덕분에 폴리처 상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폴리처 상을 받기도 했지만 곧 많은 곳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뎌야만 했다. 단지 비난에 불과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따랐음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까지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런 사태의 근저에는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고, 독수리가 이들 옆에서 기다리는 사진에서 잘 보여주듯이, 그들은 늘상 또 다른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위 예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사항들

가. 케빈 카터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지만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라고 쓸모 없이 글이 길어졌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본론이 바로 시작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혹은 본론에서 정착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다. 기교를 부렸다. 하지만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갔다. 좋은 글일 수 없다.

9. 서론과 결론 쓰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

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쓰고 싶은 방식대로 '자유롭게' 글을 쓴다.

사실은,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자유롭게' 라는 말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나. 결국은 글쓰기의 표준 형식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은 중요하다. 자유롭게 즐기면서 글을 쓰는 것은 연습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숙달된 후에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롭게 글을 쓰는 연

습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과정의 핵심일 뿐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쓴다면 글을 즐겨 쓰게 되고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들이 어떤 점에 도달할 것 같은가? 이 책에서 제시한 서론과 결론의 글쓰기 틀에 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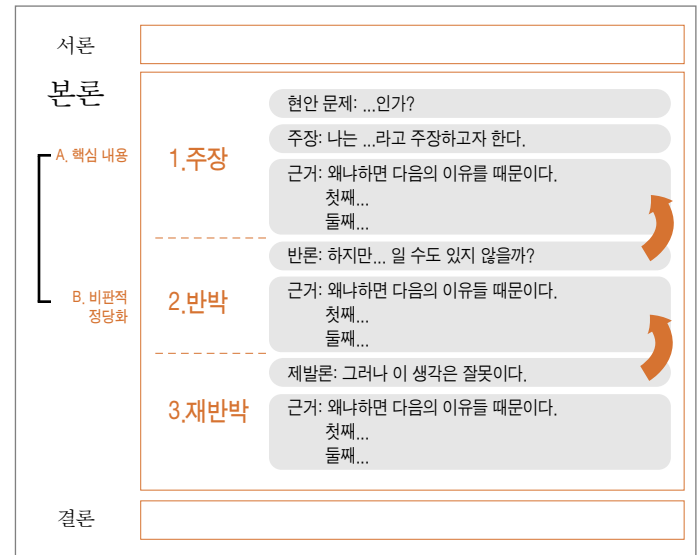
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적인 것에 숙달하고 나서 자유롭게 써 보자.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은 서론과 결론의 글쓰기 틀에 따라서 글을 써 보자. 그렇게 쓰는 것에 숙달된 후에, "이것으로 충분한가?"를 묻자. '빈 칸 채우기'와 같은 방식의 서론과 결론 쓰기, 그래서 매우 쉬워 보이는 글쓰기조차도 제대로 매끄럽게 써 보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방향을 잡은 것이다.

Step 03 학술적 글쓰기 본론의 논리적 열개

1. 학술적 글쓰기 본론의 표준 형식

학술적 글쓰기의 본론 구성은 어떤 논리적 틀을 따라야 하는가? 여기에도 표준적인 형식이 있다. 다음과 같다.



||| 핵심 사항들

가. 본론은 다음과 같이 크게 (A) 핵심 내용과 (B) 비판적 정당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A) 핵심 내용: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 모든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포함한다.

(B) 비판적 정당화: 자기 주장이 옳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 부분이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이다.

나. 글의 두 번째 부본인 비판적 정당화는 다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

- (2) 반박: 자기 주장(1)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할만한 이유를 잘 설명한다.
- (3) 재반박: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다. 반박과 재반박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a) 반박의 내용은 (1)핵심 내용 중에서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를 비판하는 것이어야 한다.
- (b) 재반박의 내용 역시 (2)반박의 내용에서 반론의 “근거”를 비판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왜 “핵심 내용 + 비판적 정당화”인가?

가. 학술적인 글(학술적 에세이, 논문 등)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 학술적 에세이는 다른 글(비학술적인 글)과 다르다.
-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 내용이 객관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에세이의 핵심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이다.
- 그렇다면 글쓴이 개인의 주장을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을까?
- 답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 학술적 에세이, 비판적 정당화가 어렵다. 그리고 중요하다.

나. 학술적 에세이 본론의 구성은 (A) 핵심내용과 (B) 비판적 정당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A) 핵심내용: 어떤 글이든 잘 쓰여진 글이라면 그 내용에서 말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 핵심 내용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이다.
- (B) 비판적 정당화: “핵심 내용(주장과 근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옳은가?”를 ‘증명’ 하는 것. 학술적인 글이 비학술적인 글과 달라지는 부분.

다. 핵심 내용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모든 글에서 말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정말 그런가? -라는 반문이 생긴다면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자. 글은 누군가가 쓴 내용이다. 그 사람이 왜 그 글을 썼는가? 마음 속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썼을 것이다. 글에서 그 ‘표현하려는 바’가 곧 주장일 수밖에 없다.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적인 글에서는 그것이 ‘주제’로 나타난다. 잘 쓴 문학 작품에는 주제가 분명하다.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학작품이 아니라 논문이나 사설이라면, 그 핵심 내용이 주장이라는 점은 더 분명하다.

한국의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입시교육 하에서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익숙해서 교과서와 같은 중요 서적의 내용들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그 ‘객관적 지식’의 출처는 어디겠는가? 누군가 어떤 사람의 생각의 표현에서 시작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체로 교과서의 지식은 합리적으로 검증된 주장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 좋은 글과 나쁜 글 비교하기.

〈예제〉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하는가?”

예

〈나쁜 예〉

나는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여러 선진국들에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또한 성매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와 비교하자면 …〈중략〉… 이렇게 볼 때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예11

<좋은 예>

나는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선진국들에서 합법화 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성매매 합법화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 <중략> ...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서 합법화해야만 할 것이다.

|||| <나쁜 예>와의 차이점

나쁜 예에서는 글쓴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좋은 예에서는 자기 입장이 아닌 반대 입장도 고려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다.

※ 하지만 <좋은 예1>은 충분히 좋지 못하다. <나쁜 예>보다 더 좋을 뿐이다. 왜 그럴까?

3. 왜 “반박 + 재반박”인가?

가. 어떻게 비판적 정당화를 할 것인가?

- 비판적 정당화의 핵심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자기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절차: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주장(생각)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핵심	내용	구성
자기 주장 옹호하기	자기 생각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반박
	...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재반박

나. 왜 “반박”, “재반박” 이라고 부르는가?

- 학술적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 ‘반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핵심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해 보도록 권장하고자 한다.

- 반박의 핵심: 단지 ‘문제가 있다’ 혹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 학생들의 일반적인 실수들

- 비판적 정당화에서 자기 주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는다.
- 학생들은 자신이 답하기 좋은 쉬운 비판을 제기한다.
-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사소하게 꼬집어보는 데에서 그친다.
- ‘논리적 비판’ 이 아니라 ‘잡담’ 에 그친다.

라. 앞에서 제시한 예에서 성매매에 대한 글 중 <좋은 예1>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 <나쁜 예>와 비교했을 때 <좋은 예1>은 더 낫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 자기 주장(성매매 합법화 찬성)을 하면서 그 반대 주장(성매매 문제점)을 진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상대 입장을 고려하는 체 했다.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매매 합법화가 옳다는 거야. 물론 반대 입장도 고려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
- 이에 비해서 좋은 예는 다음과 같다.

예12

<좋은 예>

나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매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할지 모르겠다. 그 비판도 일리는 있다. ... <중략> ... 하지만 이런 비판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 <중략> ... 이렇게 볼 때 성매매는 합법화가 그 반대 입장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4. 비판의 초점: '주장'이 아니라 '근거'

가. 다른 생각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항상 주장이 아닌 근거에 대한 비판이다.

- 핵심 내용은 '주장 + 근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대한 비판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겨냥해야만 한다.

나. 학생들의 흔한 실수 형태: 유치원 아이들의 말다툼과 같은 논리 형식.

뽀로로: "백설공주가 더 예뻐."
 포비: "아니아, 신데렐라가 더 예뻐!"
 뽀로로: "아니아, 백설공주라니까!"
 포비: "아니아, 신데렐라!" "백설공주!" ...

- 핵심: 주장을 반복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다. 다음과 같은 논변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예제〉 (주장) 성매매 합법화는 옳다.
 (근거) 왜냐하면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합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능한 두 가지 방법.

- (a) 주장을 비판하기: "아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옳지 않다."
- (b) 근거를 비판하기: "아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합법화한다고 무조건 좋을 수는 없다." 혹은 "선진국들이 마리화나를 허용하면 그것도 따라할 것인가?"

- 잘못된 논리 형식: 주장을 비판하기

(주장) 성매매 합법화는 옳다. 왜냐하면 여러 선진국들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반박) 아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재반박) 아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옳다니까! 왜냐하면 장점도 크기 때문이다.

- 올바른 논리 형식: 근거를 비판하기

(주장) 성매매 합법화는 옳다. 왜냐하면 여러 선진국들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이다.
 (반박) 아니다. 선진국이 합법화한다고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일종의 마약도 합법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도 따라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반박) 선진국의 예에 나쁜 예가 한둘 있다고 해서 선진국의 경우를 답습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나쁜 예만 가려낸다면 대체로 여러 선진국이 먼저 시도한 예를 모방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 논리적으로 올바른 비판의 어려운 점

-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이 어렵다.

5. 표준 형식을 이해하고 변형하기

가. 꼭 이렇게 써야만 하는가? 다른 형식으로 쓰면 안 되는가?

-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논리적 열개도 실제로 쓰여진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의 논리적 열개를 설명하는 것이다.
- 핵심: 자신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근거와 함께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 정당화(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다.

나. 기본을 알면 응용이 보인다.

- 중요한 기본 형식: 표준 형식 외의 중요한 논술 형식.(이것을 표준 형식과 비교해 보자.)

< 경우 1 >		< 경우 2 >	
여러 대안들	주장 1 주장 2	주장	근거 (주장 1의 장점)
비판적 검토	주장 1의 장단점 주장 2의 장단점	반박	근거에 대한 반박 (주장 1의 단점과 주장 2의 장점)
결론	주장 1이 가장 나옴	장점) 재반박	반박에 대한 재반박 (주장 2의 단점과, 전체적인 비교)

- < 경우 1 >을 < 경우 2 >와 비교하기: 내용의 논리적 열개는 그대로 유지된다. 논리적 열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 경우 1 >과 같은 글의 구성도 좋다.
- 초보자들은 표준 형식을: 표준 형식이 가장 쉽고 유용하다.
표준 형식대로 쓰면 학생들의 어투나 문장이 다소 불명확해도 어느 것이 주장이고 어느 부분이 비판적인 검토단계인지를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
- 형식을 무너뜨리면 혼란을 줄 수 있다.
- 표준 형식이 기초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기교를 부렸을 때 효과가 크다.

다. 꼭 3단계이어야 하는가?

- 비판적 정당화(반박과 재반박)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전체 글이 5단계, 7단계로 변화할 수도 있다.
-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은 '자기 주장 + 비판적 정당화' 이므로, 비판적 정당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3단계 표준 형식에서 3단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 그렇겠는가? 자기 주장을 했다고 해 보자. 이 주장에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1단계) 이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2단계) 그리고 그 이유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래 생각이 옳을 만한 이유를 확인한다.(3단계). 자, 이제 어떤 논의를 덧붙일 수 있겠는가? 웬만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 주장의 근거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 자기 주장의 근거나 반박의 근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글은 다음의 두 형식 중의 하나가 된다.

< 경우 1 >		< 경우 2 >	
주장	근거 1 근거 2	주장	근거 1 근거 2
반박	근거 1 반박 근거 2 반박	반박 1	근거 1 반박
재반박	근거 1의 재반박 근거 2의 재반박	재반박 1	근거 1의 재반박
		반박 2	근거 2 반박
		재반박 2	근거 2의 재반박

- 어느 경우가거나 나쁘지 않다.
- 더 권장할 만한 것은 근거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 근거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근거에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히 좋은 논변이 구성될 수 있다. 왜 그렇겠는가? 여러 근거들이 있다면 그 중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근거를 충분히 정당화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여러 개의 근거를 설익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근거라도 깊이 있게 상세히 검토해서 성립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러 근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민 1. “쓸 내용이 없다!”

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쓸 것이 없다”는 것이다. A4지 3장 분량의 학술적 글쓰기를 한다고 해 보자. 교수가 어떤 주제를 제시하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으로 3장을 다 채울까?”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본론 구성의 틀은 이에 대해서 1차적인 해답을 준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쓸 것이 없다”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까닭은 ‘비판적 정당화’를 뺀 부분, 즉 자기 주장만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문제’ 든, ‘임신 중절 문제’ 든, 혹은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의 주제든 간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서 쓴다면 대체로 A4지 반쪽 정도는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반박’의 단계에 들어간다면 그 내용 역시 최소한 A4지 반쪽 정도는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 입장을 고려하는 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반대 입장을 고려한다면 자기 주장만큼이나 그 반대자도 할 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주장에 있던 내용 중 그 근거에 대한 비판이 조목조목 나와 줘야 한다. 그러다 보면 <2>반박의 내용은 주로 <1>주장의 내용보다 더 많아지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다시 <3>재반박의 단계에서는 <2>반박의 단계에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대답을 해 줘야 한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3>재반박의 내용은 <2>반박의 내용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의 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반박〉의 논리적 구성요소

- 반박의 내용이 틀린 까닭
- 주장’의 내용이 옳은, 보다 상세한 이유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예를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위 단락의 마지막 예를 보자.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주장·반박·재반박의 틀로 구성한 예 말이다. 재반박 단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가장 길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재반박의 내용을 더 짧게 줄여보자. 아마 줄이기 힘들 것이다.

결국 핵심 내용(1)주장의 분량이 A4지 반쪽을 채운다면, 대개의 경우 전체 본론의 내용은 A4지 2장을 넘게 된다. 여기에 서론과 결론을 덧붙이면 대략 A4지 3장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고민 2. 논리적 비판이 아닌, 흠집 내기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은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학생들을 쉽게 오해한다. 그 오해의 특징을 나는 “흠집 내기”라고 부른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학생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라”고 요구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자기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하라”고 요구하면, 많은 학생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반박)흠집을 한 번 내고, (재반박)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흠집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고등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 도달하는 수준이다.

다음과 같은 구성의 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임신중절 찬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쟁이다.

〈흠집내기〉

- (주장) 나는 임신중절에 대해서 찬성한다. 왜냐하면 산모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반박) 하지만 아기 입장도 생각해야만 한다. 죄 없는 아기는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것 아닌가?
- (재반박) 그러나 아기 입장도 중요하지만 산모의 불행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

흠집 내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 쪽 입장(주장)의 장점(근거)을 말한 다음에 그 단점(흠집)을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장점(근거)를 말한다. 임신중절의 주제에 대한 예도 그러하다. 임신중절 찬성의 근거는 산모의 권리이다. 이제 비판적 검토를 위한 반박의 단계에서 아기의 입장을 말한다. 산모의 권리라든 근거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재반박의 단계에서 아기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흠집을 낸다. 산모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이 좋은 예이다.

(주장) 나는 임신중절에 대해서 찬성한다. 왜냐하면 산모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박) 하지만 산모의 권리는 태아의 권리와 충돌한다. 태아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살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반박) 그러나 태아의 권리를 말할 때는 태아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태아를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산모보다는 덜 완전한 사람이다. 또한 태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태아 한 명의 권리보다는 산모와 그 가족 여러 명의 권리와 행복이 더 우선적이다.

좋은 예에서는 논리적 비판이 물고 물려 있다. 주장의 근거는 산모의 권리이다. 반박은 그 권리가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반박은 ‘태아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그 주장의 전제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흠집 내기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인 맞물림이 없었다.

하지만 흠집내기의 예나 위의 좋은 예나 결국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학술적 글쓰기의 문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이다. 그리고 논리의 문제는 “무엇이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의 문제이지, 대략적으로 내용이 비슷하지 다른지의 문제가 아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소풍을 못 갔다”와 “소풍을 못 갔기 때문에 비가 왔다”는 서로 비슷한 내용(비가 왔고, 소풍을 못 갔다는 내용)이지만 앞의 것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뒤의 것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논리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고민 3. 너무 어렵다, 어려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의거해서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어떤 점이 왜 어려울까? 답은 이리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논리적 틀을 따라서 글을 쓰려고 하면 학생들이 정확히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이 어렵다.

이 틀을 따르지 않고 글을 쓰면 어떻게 되는가? 좀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주장을 담은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이 점이 어렵다. 여러 생각들 중에서 어떤 한 생각(글을 쓰는 학생의 생각)이 더 나은 생각, 더 논리적으로 합당한 생각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겠는가? 그 과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학술적 글쓰기의 논리적 틀 역시 쉽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글을 쓰면서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의 글쓰기로 생각과 글쓰기를 모두 마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상대를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설득력있는 내용을 담은 글이 그렇게 쉽게 한 번만에 쓰여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학술적 글쓰기 내용의 논리적 틀을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쉽게 한 번만에 쓸 수 없게 된다.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처럼 빈 칸을 채우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빈 자리에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서론과 결론을 쓸 때도 그러했듯이, 빈 칸만 채우는 것인데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마치 가로세로로 짜맞추어서 정확한 글자를 골라내어 빈 칸에 넣어야 하는 낱말맞추기처럼, 많은 생각을 해서 빈 칸에 들어갈 생각을 찾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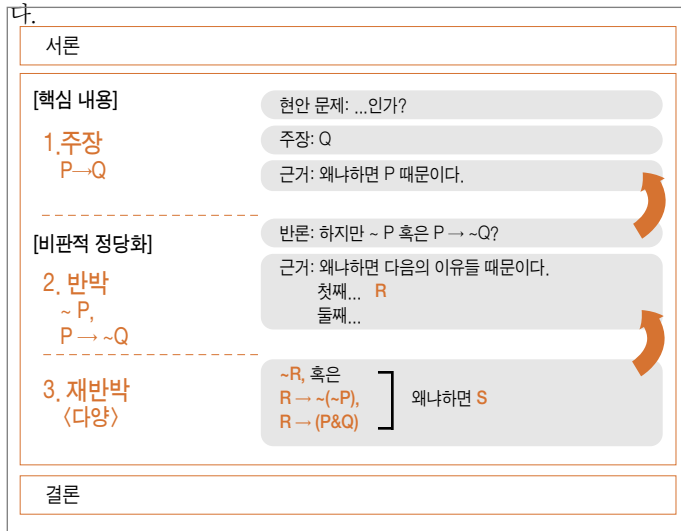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책의 논리적 틀이 쓸모가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그러하다. 즉 학술적 글쓰기를 잘 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히 어떤 점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점을 만족시키면 기본적으로 훌륭한 논리를 갖춘 학술적 글을 쓸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반대로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능은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훌륭한 학술적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Step 04

학술적 글의 본론 구성 방법을 더 상세히 이해하기

1. 논변의 정확한 논리 형식

더 상세한 학술적 에세이의 논리적 형식을 알아 보자. 다음의 그림과 같



핵심 사항들

P(근거) → Q(주장) : Q이다. 왜냐하면 P이기 때문에.

가. 핵심 내용의 논리적 형식

- 핵심 내용은 '주장(Q)+근거(P)'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근거(P)이므로 주장(Q)이다"의 논리적인 형식을 갖는다.
- 그러므로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학생들은 자기 주장의 근거를, 주장의 충분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반박의 논리적 형식

- 1) ~P : P가 아니지 않을까?
- 2) P & ~Q : P일지라도 Q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R

- 예를 들어 "오늘 야외 조사를 안 간다. 왜냐하면 비가 왔으므로"를 비판한다면, "비가 안 왔잖아?(~P)"라고 하거나 "비가 와도(P) 야외 조사는 가는 거야."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 그리고는 그에 대한 이유(R)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오늘 야외 조사는 비오는 날의 곤충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가 될 수 있다.

다. 재반박의 논리적 형식

- 1) ~R : R가 아니지 않을까?
- 2) R & ~반박 : R일지라도 반박이 잘못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S
- 3) 최종적으로, "P→Q가 옳다"

- 예를 들어 "야외 조사는 비오는 날의 곤충활동에 대한 것(R)이긴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P)에는 조사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야외 조사 안 가는 것(Q)이 맞아."라고 말한다.
- 재반박의 결과는 원래 주장인 "근거(P)이므로 주장(Q)"을 재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비판적 정당화(반박 + 재반박)의 결과는 "P→Q"가 아니라 "P→Q가 옳다"이다.

라. 어려운 점은 정확한(좋은) R과 S를 찾아내는 것이다.

- 학술적 에세이는 어렵다.
- 어려운 점은 R과 S와 같은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 문장을 아름답게 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마. 학술적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 논리성이 필요한 지점: 표준 형식을 잘 따르는 것.
- 창의성이 필요한 지점: a) 좋은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b) 반박이나 재반박에서 “~P”나 “P→~Q”의 형식을 택하는 것.

2.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흔한 실수들

가. 허술한 정당화

- “굳이 이런 점을 거창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학생들은 생각한다.
-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학술적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 혹은 알아도 그에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를 하지 못한다.

〈예제〉 “모병제가 좋을까 징병제가 좋을까?”

〈허술한 정당화〉

- (주장) 나는 모병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병제가 …(장점)…하기 때문이다.
- (반박) 하지만 모병제에는 …(단점)…과 같은 문제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중략)…하다.
- (재반박) 하지만 모병제는 …(다른 장점)…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병제가 더 나은 병역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예의 문제점은 그 내용이 “비판적인 체”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데에 있다.
- 이와 같은 논리 전개는 그나마 최악은 아니다.
- 최악의 경우에 학생들은 단지 자기 주장(모병제의 장점)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글을 채운다.
- ※ 허술한 정당화 문제의 핵심: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슬쩍 흠집내기’를 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잘 이해 안 돼요〉

〈허술한 정당화〉와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모병제에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장점도 있지.” 결국 장점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면 정당화된 것이 아닌가?” 다음의 대화를 보면 허술한 정당화의 논리가 가진 한계가 잘 보일 것이다.

〈누가 잘 냈나? 1〉

- 철수 내가 너보다 잘 냈어. 내가 더 공부를 잘 하니까.
- 영수 흥, 아니야. 내가 더 잘 냈어. 내가 더 달리기를 잘 하니까.
- 철수 하지만 나는 너보다 청소를 더 잘 하는데?

이 다음에 영수가 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명약관화하다. 영수도 자신이 더 잘 하는 것을 나열할 수 있다. 철수는 자신이 더 잘 하는 것을 더 많이 제시할 것이고 영수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철수가 자신의 장점을 하나 더 말하고는 거기서 끝낸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잘 냈나? 2〉

- 철수 내가 너보다 더 잘 냈어.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 하는 것이 많으니까.
- 영수 하지만 잘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정말 더 잘 냈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 철수 그렇긴 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적인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 옳아.

나. 자꾸 새로운 근거를 꺼집어 내기

- 허술한 정당화의 중요한 특징: 새로운 근거가 나중에 제시된다!
- 다음의 예를 보자.

예

〈성적 문제 1〉

철수 선생님, 제 성적이 왜 낮아요?

선생님 그건 네가 시험을 잘 못 치렀기 때문이다.

철수 하지만 저는 봉사활동은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 하지만 수행 평가는 못 했잖아?

- 이 대화에서 선생님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성적이 낮은 이유(수행 평가)가 나중에 추가되었기 때문.

- 어떻게 되어야 올바른가?

예

철수 선생님, 제 성적이 왜 낮아요?

선생님 그건 네가 시험도 잘 못 치렀고, 수행 평가도 못 했기 때문이다.

- 모든 학술적 에세이에서도,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처음에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

※ 이럴 경우에 학생들의 고민: “그렇다면 반박과 재반박의 단계(비판적 정당화의 단계)에서는 무슨 논의를 하란 말인가?”

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

- 학술적 에세이의 내용이 표준 형식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2가지.

1. 쉽게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피한다.
2.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 학술적 에세이는 보통의 잡담이나 기사거리보다 논리적으로 정교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어렵다.

비판적 정당화(반박과 재반박)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근거와 주장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학생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거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근거와 주장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다.

- 그만큼 생각을 잘 해야 한다.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

- 학생들이 이런 노력을 집중하지 않으면서 학술적 에세이를 쓰려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있는 논리를 구사할 수 없게 된다.

Step 05

학술적 에세이 내용의 논리적 구성에 대한 종합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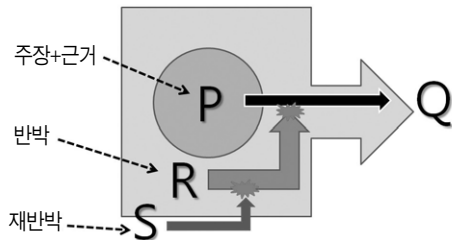
가. 학술적 에세이의 내용 흐름의 표준 형식

이 책자의 핵심은 논리적 표준 형식이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본틀	내용 구성		
<서론>	현안 문제, 주장, 의의		
<본론>	핵심 내용	주장	주장(Q) + 근거(P)
	비판적 정당화	반박 재반박	근거(P)에 대한 비판(R) 비판(R)에 대한 비판(S)
<결론>	주장, 의의, 발전 방향		

나. 학술적 에세이의 생각의 열거

한편 주장(Q), 근거(P), 반박 근거(R), 재반박 근거(S)의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선생님에게 성적 문제를 따졌을 때 선생님이 설득력있게 대답한 <성적문제 2>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성적이 낮은(Q) 이유는 시험을 못 쳤기(P)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봉사활동은 많이 했다(R)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성적의 비중은 크고 봉사활동의 비중은 낮다는 것(S)이다.

※ 여기서 중요한 것

전체 논의에서 여러 가지(R, S)가 언급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시험을 못 쳤기(P) 때문에 성적이 낮다(Q)라는 논지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저것 모두 고려한 결과 철수의 성적이 낮은데, 그 때 성적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철수가 시험을 잘 못 치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생님의 첫 번째 주장의 근거가 '시험을 잘 못 치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반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야기는 확장되었지만 중심은 유지되었다. 비판적 정당화 과정에서 논의가 확장되었지만 같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강조했을 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성적 문제 1>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재반박(S) 단계에서 엉뚱한 이야기(수행 평가는 못 했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

학술적인 글은 잘 쓰기 어렵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겨우 3장의 글을 쓰더라도 힘들다. 쉽게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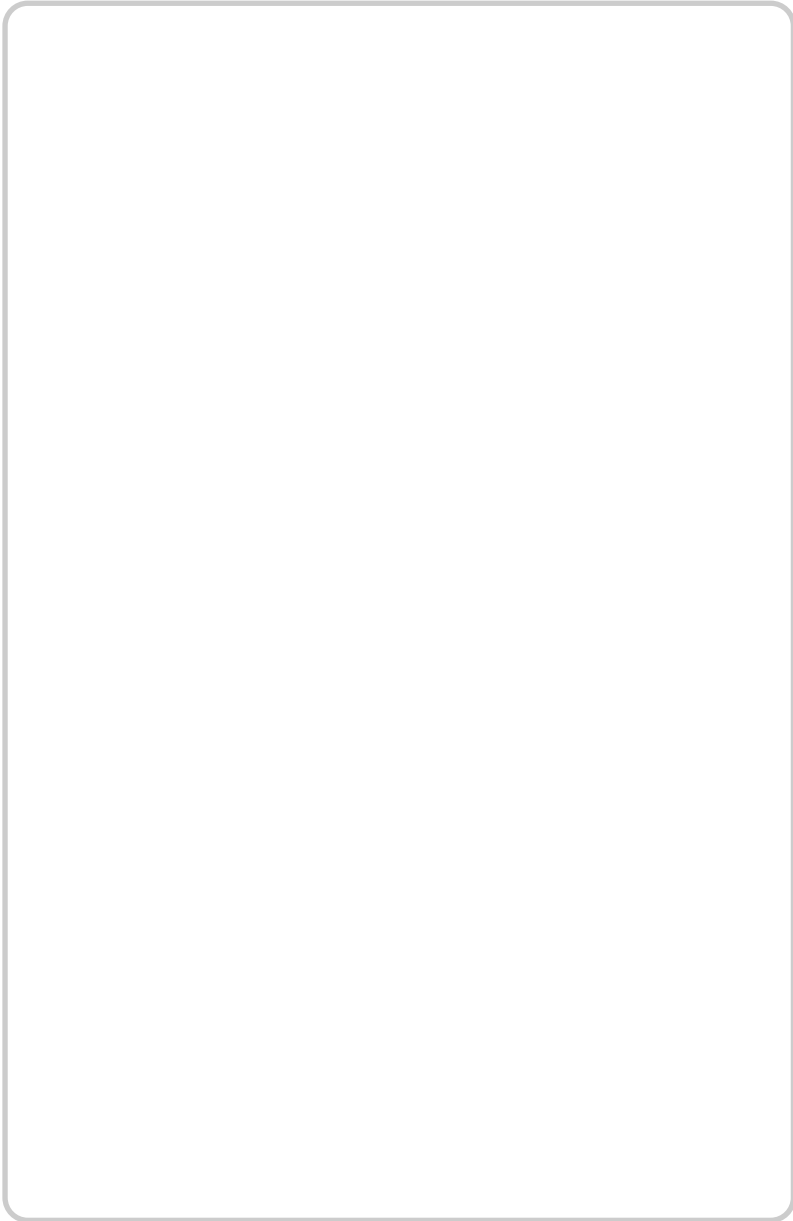
둘째,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생각을 다시 형식에 맞춰서 잘 표현하라.

생각하기와 글쓰기를 분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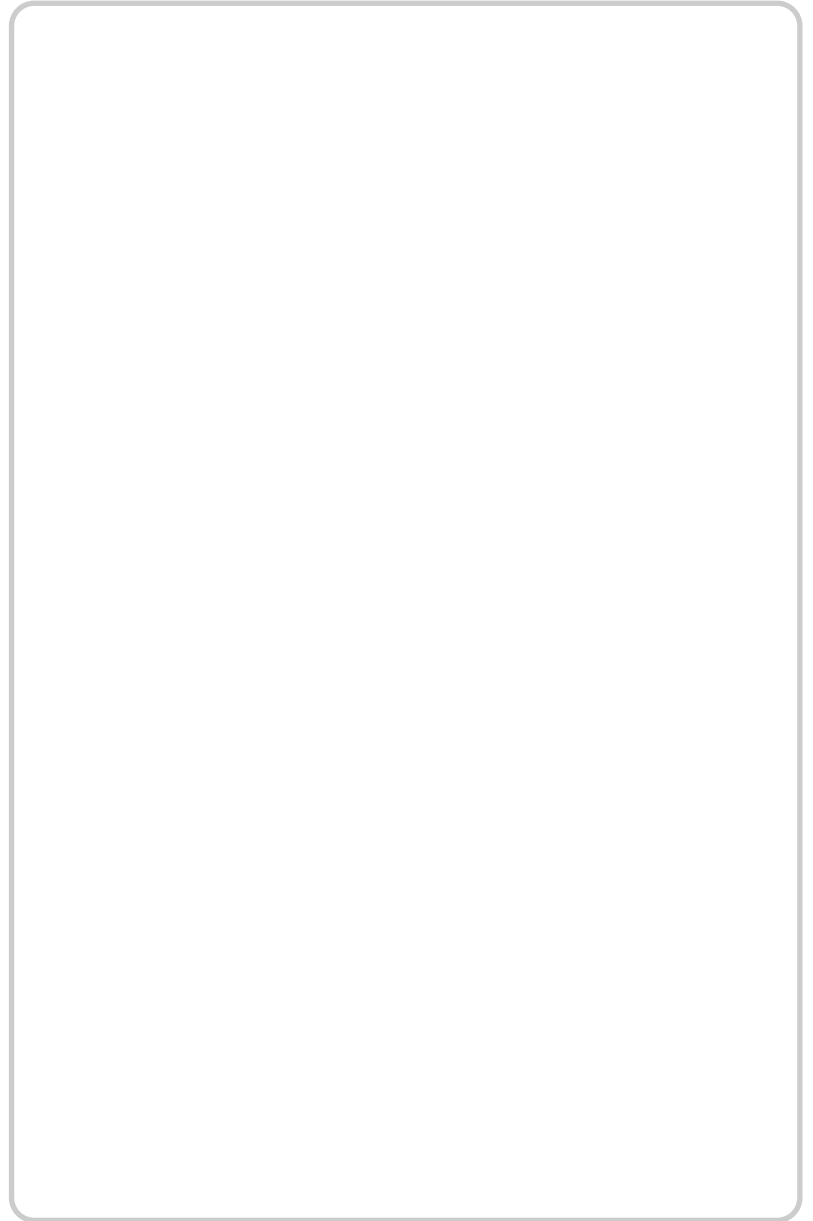
셋째, 학생들이 초보자라면, 기초에 충실하라.

기교적인 글, 그래서 멋있고 인상적인 글에 현혹되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적인 측면에서 직설적으로 잘 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memo



memo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outlined in a light gray color and occupies the left side of the page.